

## 조선 전기의 契會圖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

홍선표

### I. 머리말

문사와 관인의 복합적 존재였던 사대부들은 ‘同輩’와 ‘斯文’으로서 우의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해에 태어났거나(‘同甲’), 같은 해 과거에 합격했거나(‘同年’), 국가적인 행사에 선발되어 함께 일했거나(‘同事’), 같은 관아에서 근무하거나(‘同任’), 함께 늙어가는(‘耆老’) 등, 동일한 조건이나 처지를 매개로 佳節이나 직무 여가에 모여 詩酒 풍류를 즐기며 교분을 쌓았다. 契會圖는 사대부들의 이러한 동류의식과 결부된 친목 모임을 영구히 기념하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고려시대에 ‘해동기회도’와 ‘연암연집도’가 그려진 바 있지만, 조선왕조에 이르러 본격화되어 관료와 문인사회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다. 태종 이방원(1367~1422)이 정안군 시절인 1390년대에 생년이 같은 丁未生 신진 관료 20명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그린 ‘丁未甲契圖’ 이후 조선 전기의 문집 류에 500건에 달하는 회회도 관련 시문이 전한다. 문집 류에 수록된 이 시기의 회화 기록 2,300여 건의

洪善杓  
梨花女子大學校  
美術史學科 教授  
九州大學 文學博士  
韓國繪畫史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2-G00005). 3년간의 지원과제는 <해외소재 15·16세기 조선회화의 발굴조사 및 종합DB구축>임.

\*\* 필자의 최근 논저: 「신라 회화의 재구성」, 『美術史論壇』35, 2012. 12; 「월전 장우성의 인물화」, 『월전탄생100주년기념논문집』, 2012. 12; 「조선 초 회화의 양대 산맥, 안전과 강희안」, 『문화와 나』 95, 2012. 10; 「김홍도 생애의 재구성」, 『美術史論壇』34, 2012. 6.

22%에 가까운 것으로, 상당량의 계획도가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전기 관각문예의 꽃이기도 한 계획도는 동아시아의 아회도 또는 文會圖의 변양된 갈래로서, 제목과 계획 장면 그림, 시문, 참가자의 좌목으로 구획되어 조합한 조선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그리고 화면에 명기된 年紀나 좌목에 기재된 참가자의 관직명을 통해 그려진 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 기년명 작품이 거의 없는 이 시기의 회화 사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야외에서의 모임 장면을 그린 계획도의 경우 산수화의 양식 변천을 파악하는데 더 할 수 없이 요긴하다.<sup>1</sup>

1488년의 〈霜臺契會圖〉에서 1600년의 〈二十三霜臺會圖〉에 이르기까지 조선 전기 계획도로 알려진 작품은 현재 50점 정도이다.<sup>2</sup> 이 가운데 10점이 일본과 미국에 소장되어 있고 판각본과 모사본으로도 3점이 전한다. 새로운 자료 5점을 포함해 모두 이 시기 계획도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해외소재 15·16세기 조선회화의 발굴조사 일환으로 새롭게 집성한 계획도 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이 시기 계획 및 계획도의 유형 및 전개 양상을 개관해 보고, 해외 소재 계획도 작품들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II. 조선 전기 계획도의 유형과 전개

계획도는 사대부 계획과 결부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문사 또는 儒者이며 관료인 사대부=文臣들의 계획은 ‘同輩=吾輩’이며 ‘斯文’으로서의 동류적 동지적인 교제와 결속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사회가 구축되던 고려 중기 경 태동된 것으로 생각된다. 발생 초기의 계획로는 판각문사 등을 지낸 庾資諒(1150~1229)이 16세 때인 의종 19년(1165)에 문신 귀문 자제들과 ‘交契’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규보(1168~1241)는 “문신이 성해지던 의종 시기(1146~1170)”에 생긴 것으로 보았다.<sup>3</sup>

1 계획도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고유섭의 관련 문헌기록 수집과 「명창리 쌍명재 契會地」, 『송도고적』에 의해 1930년대에 대두되었으나, 체계적인 연구는 안휘준,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획도〉 소고」, 『역사학보』65(1975. 3)와 「16세기 중엽의 계획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회화양식의 변천」, 『미술자료』18(1975. 12); 「한국의 문인계획회와 계획도」, 『한국회화의 전통』(문예출판사, 1988)에서 시작되어 박은순과 이원복, 박정혜, 이태호 등을 거쳐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3)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졌다.

2 윤진영의 연구에서는 15~16세기 조선 전기 계획도로 45점의 작품을 다루었다.

3 李奎報, 「銀青光祿大夫尙書左僕射致仕庾公墓誌銘」, 『東國李相國集』卷36 참조.

그리고 이 무렵 임춘(1170년 전후)은 향교 유생들 ‘衣冠高會’의 ‘會飲’에 참석하여 지은 시에서, 문사들 여가생활의 상징으로 여기던 공자와 증점의 ‘吾與點也’고사로 이들 모임을 칭송한 바 있다.<sup>4</sup> 향교 유생계획회는 태종 16년(1416) 9월에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한 11명의 幼學이 결성한 ‘洛下同舟契’로 이어졌으며, 이 모본으로 보이는 그 契軸이 현재 전하고 있다.

의종 연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문신관료사회에서의 계획회는 13세기 초에 이르러, 왕희지의 난정수계와 백거이의 낙중(향산)구로회, 문언박의 진솔회=낙양기영회 등의 아회고사를 效倣한 모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종 4년(1201)에 정 2품 문하평장사가 된 奇洪壽(1148~1209)가 음력 3월 3일 上巳節과 9월 9일의 중앙절을 맞이하여 “慕蘭亭勝集” 즉 난정의 빼어난 모임을 사모하여 열은 ‘禊宴’에 참석하여 마치 선계에서 노닐 것 같은 풍류를 즐긴 바 있다.<sup>5</sup> 이러한 난정수계는 가절에 청산을 마주해 자리 잡고 종일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며 정을 나누는 ‘禊飲之游’와 ‘禊飲風流’로 확산되었으며, ‘熊川禊飲’은 송도팔경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sup>6</sup>

당송대의 구로회와 진솔회를 효방한 기로회 또는 기영회, 耆舊會는 신종 6년(1203) 최당의 별서인 쌍명재에서 열린 ‘해동기로회’를 시작으로 파생되었다. 고위 관리로 퇴직한 원로들의 모임으로 매월 10일에 장소를 바꿔가며 연회를 가진 것 같다.<sup>7</sup> 몇 년 뒤에 유자량과 금의, 이규보가 기로회를 결성했으며, 고려 말기의 이진과 채홍철, 민사평, 염제신, 이색 등으로 이어졌다.<sup>8</sup> 그런데 고려 말기의 기로회는 “군자의 優遊自樂하는 뜻을 잃고” ‘辦供’이라 부르며 ‘誦經禮佛’하는 拜佛모임으로 변질되어 조선 초에 연접 또는 아회 고사로 새롭게 부흥된다.<sup>9</sup>

고려 후기 이후로는 이러한 문사적인 倣古 계획 이외에도 관료를 비롯한 신흥 사대부들의 각종 친목모임이 대두되었다. 13세기 후반 무렵 문예춘추관인 ‘史館’의 정원에 장미꽃이 피면 관료들이 그 아래 “모여 술을 마시고 완상하며(會飲而賞)” 즐

4 “昨入宮墻拜聖眞 衣冠高會杏壇春 祇因曾點初成服 得見宣尼善誘人 藹藹升堂多吉士 陶陶滿坐盡嘉賓 老儒久歎斯文喪 始喜名都禮義” 林椿, 「鄉校諸生見招會飲作詩謝之」, 『西河集』卷2.

5 李奎報, 「謝奇平章召赴禊宴啓」, 『東國李相國集』卷24 참조. 이규보는 이 밖에도 승전을 지낸 崔宗蕃 등과 四人契會를 가진 바 있으며, 노년에는 耆舊會를 열은 바 있다. 「追哭故承宣崔宗蕃 并序」, 『東國李相國集』卷17; 「次韻李學士百全復和前詩來贈」, 『東國李相國集』卷2 참조.

6 閔思平, 「浩齋公枉顧弊止 贈以高作 不勝感佩 謹次韻和成 三首」, 『及菴詩集』卷3; 李集, 「六月十五日書懷」, 『遁村雜詠』; 李齊賢, 「憶松都八詠」, 『益齋亂藁』卷3 참조.

7 박종진, 「고려시기 해동기로회의 결성과 활동」, 『역사와 현실』66(2007), pp.303-335 참조.

8 채웅석, 「고려 중·후기 기로회와 개경 사대부사회」, 『역사와 현실』79(2011), pp.60-99 참조.

9 權近, 「後耆英會序」, 『陽村集』卷19와 『世宗實錄』卷59, 世宗 15年(1415) 1月 19日 條 참조.

겼으며, 이를 상례화하여 ‘薔薇宴’이라 불렀다고 한다.<sup>10</sup> 이러한 관아 회음 풍조는 조선 초인 태종 2년(1402)에 왕이 술을 하사한 예문관의 ‘장미연’과 성균관의 ‘벽송연’ 교서관의 ‘홍도연’으로 이어져 관아계회의 원류가 된다. 공민왕 11년(1362) 8월에는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남으로 몽진한 왕을 호종했다가 돌아오면서 환도를 기뻐하며 고락을 함께 한 7명의 중신들이 보령의 元巖에 모여 시주와 연주를 즐긴 ‘七老元巖會’ 또는 ‘원암연집’이 이루어진 바 있다.<sup>11</sup> 그리고 우왕 8년(1382)경 정해년(1347)의 진사시에 합격한 同年들을 중심으로 36년이 지난 뒤 그 후손까지 참석하여 ‘南京會飲’을 즐기며 대를 이은 ‘世年’의 우의를 다졌다.<sup>12</sup>

同榜會로도 지칭되던 동년회의 경우, ‘唐人登科燕集’에서 유래된 것으로 ‘同年契者’들이 과거 합격 방목에 같이 이름을 올린 ‘雁塔題名’을 고사로 삼아 曲江 등에 모여 친목을 도모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sup>13</sup> 中唐 이후 시로 인재를 뽑는 과거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전개되었으며, ‘朝紳同年會’로 확산되어 백거이의 ‘東都同年宴’과 범성대의 ‘姑蘇同年會’가 유명하였고 “作圖以紀” 즉 잊지 않기 위해 그림으로도 만들었다.<sup>14</sup> 과거에 장원한 급제자 모임으로 희종 5년(1209)에 결성된 龍頭會도 당나라의 등과연집에서 파생된 것인데, 장원급제자가 부모를 뵈고 잔치를 베풀어 영광을 돌리는 ‘榮親’ 행사의 관례로 인식되기도 했으며, 고려 말기에는 ‘風流閒雅’이며 한때의 ‘盛事’로 거행된 바 있다.<sup>15</sup>

이 밖에도 고려 말기의 이색과 이첨의 행적을 통해 동갑과 동향, 동학, 동료로서 맺어진 신흥 사대부들의 다양한 친목 모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그런데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후·말기에 확산된 사대부들의 친목 풍류모임은 “丹青望後來”

라 하여 그림으로 훗날 전해지기를 원하기는 했지만,<sup>17</sup> 그려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림으로 그려진 사례는 ‘해동기로도’와 ‘원암연집도’ 2건만 기록으로 전한다. ‘해동기로도’는 畫局의 화원으로 추정되는 李侗이 그린 것이다. 이인로의 발문에 의하면 참여인물의 標誌를 안 보고도 얼굴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적인 원체풍이었던 것 같으며, 가야금과 바둑, 시주를 즐기며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도상으로 묘사되었다고 한다.<sup>18</sup> 이러한 양태는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는 도상을 비롯하여 琴碁詩酒로 연음아집하는 정황을 그린 <唐18학사도>를 연상시킨다.<sup>19</sup> 특히 당나라 瓘本이 그린 최초의 18학사도에는 “具題名字爵里” 즉 그림 제목과 참가자의 이름과 자호, 관직 및 향리를 기재하고, 褚亮(560~647)이 찬시를 지어 넣었는데,<sup>20</sup> 이와 유사하게 ‘해동기로도’에도 인물들의 ‘표지’와 함께 최당의 시가 곁들여졌다. 조선 전기 계획도의 조합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18학사도에서 발생되어 ‘해동기로도’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sup>21</sup>

‘원암연집도’는 1362년의 회집에 참석했던 瓘제신이 화공에게 명하여 그리게 한 것이다.<sup>22</sup> “(그림 속의) 닳은 모습들이 말씀하는 것 같다(肖形如欲語)”고 한 언술로 보아,<sup>23</sup> ‘해동기로도’처럼 원체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기의 18학사도나 ‘해동기로도’와 같은 집단 초상화의 화공과 달리 ‘원암연집도’는 이를 본 이색이 “내가 살펴보건대 산야의 나무숲이 야외의 막사에 어리어 비치는 광경이 완연히 눈에 들어오는 가운데, 여러 원로들이 그 옆에서 연회를 베풀며 노니는 풍채가 그야말

10 “史館庭中有薔薇一株 枝幹扶疏若張蓋焉 花開方盛 館翰諸公必會飲而賞 率以爲常 名之曰薔薇宴 今年是會 內相河間公作長句一篇 送黃封酒以侑其歡”, 李承休, 「次韻俞內相薔薇宴詩」, 『動安居士行錄』卷2.

11 李穡, 「元巖讌集唱和詩序」, 『牧隱文藁』卷9; 「穡與韓柳巷 同赴曲城 招漆原侍中」, 『牧隱詩藁』卷28 참조.

12 李穡, 「丁亥進士同年 南京初會 壯元朴公招僕侑坐」, 『牧隱詩藁』卷33 참조.

13 陣思, 「京兆府」上, 『寶刻叢編』卷7 참조.

14 倪岳, 「臘月二日諸同年會飲予家」, 『靑谿漫稿』卷3; 王世貞, 「劉氏藏甲申十同年會圖」, 『弇州四部稿』卷169 참조.

15 李穡, 「歷科壯元作讌曰龍頭會」, 『牧隱詩藁』卷25 참조.

16 채웅석, 「『牧隱詩藁』를 통해서 본 이색의 인간관계망」, 『역사와 현실』62(2006), pp.75-109; 정구복, 「쌍매당 이첨의 역사서술」, 『동아연구』17(1989), pp.281-311; 윤진영, 앞의 글(2003), pp.21-25 참조.

17 “此會眞難得 丹青望後來”, 李穡, 「穡與韓柳巷 同赴曲城 招漆原侍中……元巖一席之流傳於後世」, 『牧隱詩藁』.

18 李仁老, 「題李侗海東耆老圖後」, 『東文選』卷102 참조.

19 <唐18학사도>에 대해서는 홍선표, 「조선전기 <18학사도>의 신원」, 『美術史論壇』27(2008. 12) 참조.

20 “庫直圖立本圖形貌 具題名字爵里 仍教文學褚亮爲之像贊 勒成一卷”, 張彥遠, 『歷代名畫記』卷9.

21 ‘18학사’는 당 태종이 시문과 학문에 뛰어난 인사를 뽑아 구성했던 文學館의 인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후대에 이들을 미화하여 학사들 모임 그림을 ‘登瀛圖’라 했는데 이 ‘등영도’에 대한 송대의 발문과 찬문을 보면, 학사들이 “산이나 물가에서 문회를 열어(登臨山水 結爲文會)”, “나무 아래 악공들이 거문고와 생황을 올리고 그 중 팔학사는 네 구석에 등글레 둘러 앉아(樹下樂工鳴琴笙 八士環列按四隅)” 담소하며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所職姓名’이 적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문의 내용에 의거해 볼 때, 엘리트 학사들의 야외아집의 文酒 장면을 그린 ‘등영도’의 성격과 일부 구성방법 및 형식도 계획도의 연원적 구실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선표, 「정유길 題詩 <宣傳僚友重會關西圖>」, 『美術史論壇』12(2001. 6) 참조.

22 李穡, 「曲城府院君 命工作元巖讌集圖」, 『牧隱詩藁』卷28.

23 “七老元巖會 天留兩侍中 肖形如欲語 握手每相逢”, 李穡, 「穡與韓柳巷 同赴曲城 招漆原侍中……元巖一席之流傳於後世 卿等之力也……穡等拜受不敢辭 明日吟成」, 『牧隱詩藁』.

로 한 시대를 압도하며 후세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sup>24</sup> 경관을 배경으로 야외에서의 모임 정경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전기 야외 계획도의 효시로서의 의의를 지닌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이 고려 중기 말엽의 의종 연간에 발생한 사문동배의 회음풍류 계획은 후기 이후 사대부의 성장과 더불어 확장되어 웅천제음과 해동기회, 장미연, 동년회, 용두회, 칠로원암회, 갑계 등 다양한 유형의 시주풍월 친목모임과 이를 기념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찬시를 곁들이는 그림 형식이 대두되었다. 조선왕조는 이들 사대부 세력과 이성계가 연합하여 개창했기 때문에 고려의 계획 관련 풍조를 ‘前朝盛事’ ‘斯文勝集’으로 의식하며 계승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1392년 7월 27일 이성계가 개경 수창궁에서 즉위한 지 2개월 뒤인 9월 28일에 개국공신의 자손과 동생 및 사위들이 ‘충효계’를 맺고 왕륜동에 모여 다짐했는가 하면, 태종의 즉위해인 1400년 겨울에 좌명공신들이 ‘恩信契’를 결성한 바 있다.<sup>25</sup> 인륜적 신의를 구현하기 위한 ‘同心’ ‘同志’의 친목 모임으로 결계한 것이다. 개국 초의 중심인 권근(1352~1409)과 성석용(1352~1403)은 동경계=동갑계를 만들고 우의를 다졌다.<sup>26</sup> 태종 이방원(1367~1422)도 정안군 시절인 1390년대에 생년이 같은 정미생(1367) 신진 관료 이척, 민수산, 조치, 박초 등 20명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태종이 직접 “死生을 같이하자”는 ‘同庚誓文’을 작성했으며 ‘丁未甲稷圖’를 제작하게 하였다.<sup>27</sup> 이 계획도는 고려 간의대부 탁광무의 아들로 이 모임에 참석한 탁신(1367~1426)의 집안에서 전해지던 것인데, 1850년 무렵에 帖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아 이모되면서 개장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권채(1399~1438)의 「碧松亭稷飲」에 의하면, 소나무가 울창한 성균관 뒷산의 정자에서 난정수계를 효방하여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시를 즐기는 ‘斯文高會’가 열리기도 했다.<sup>28</sup>

<sup>24</sup> 李穡, 「使季子承旨庭秀 携以相示 誌其後 予觀山野樹林 掩映氈廬 宛然在目 而諸老讌集其傍 風采足以鎮一時 而聳動後世 故直書其事而歸之情不能已 吟成長歌」, 『牧隱詩藁』卷28.

<sup>25</sup> “開國功臣子孫弟壻結爲忠孝契 會盟于王輪洞”, 『太祖實錄』卷2, 太祖 1年(1392) 9月 28日 條; 李詹, 「恩信契文」, 『雙梅堂集』卷23 참조.

<sup>26</sup> 權近, 「哭成大司憲 石略」, 『陽村集』卷9 참조.

<sup>27</sup> “丁未甲稷圖 卽我太宗在靖安邸時 與同庚諸人 設稷而成圖者也 有若李仲卿李伯舍李陟閔壽山張允和黃允正曹致朴礎權希達李揚李伯有卓愼朴翺柳善朴實柳濕金素徐選金自知林滌 二十人爲同稷而各以降生月日爲序次焉”, 卓光茂, 「敬書丁未甲稷圖後」, 『景濂亭集』序. 태종의 ‘동경서문’에 대해서는 『世宗實錄』卷54, 世宗 13年(1431) 12月 5日 條 참조. 이방원의 정미갑계에 참여했던 박실과 유선은 태종 10년(1410)에 원종1등 공신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공신 선정에 대해서는 김윤주, 「태조~태종대 정치와 정치세력」(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참조.

<sup>28</sup> “碧松亭下華山陲 雲淡風輕日正遲 宛似羲之脩禊處 還如點也詠歸時 長笛聲中舞袖垂 嗟我不才參

이와 같이 고려의 계획 풍조를 계승한 조선 초에는 태종 2년(1402)에 왕이 ‘儒雅’를 중히 여겨 예문관과 성균관, 교서관의 ‘장미연’과 ‘벽송연’ ‘홍도연’ 등의 會飲과 이거이(1348~1412)가 만든 기로회에 술을 하사하며 권장하였다.<sup>29</sup> 이거이의 기로회는 권근이 1404년에 쓴 「後耆英會序」를 통해서도 취지와 회약 등이 알려져 있는데, 고려 말에 불교행사로 변질된 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계승하려 한 것이다. 태종 11년(1411)에는 우의정 노승(1337~1414)이 성석린 등 원로와 기영회를 결성하고 ‘優游’한 바 있다.<sup>30</sup>

세종조에 이르러는 태평성세를 명분으로 기영회와 관료사족 회음 모임의 정례화를 추진하게 된다. 세종 11년(1429) 8월 24일에 우의정으로 퇴직한 유관(1346~1433)이 이와 관련하여 왕에게 건의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31</sup>

상고하면, 당나라 덕종이 2월 1일과 3월 3일, 9월 9일에는 문무 관료들을 경치 좋은 곳에서 완상하며 즐기게 했으며, 이를 칭송하여 韓愈가 천자께서 三令節을 정하여 公卿과 여러 有司에 조서를 내려 그날에 이르러서는 각기 그 官屬을 거느리고 술마시며 즐기게 하시니, 그 여가를 같이 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복하게 하여 文華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송나라 태종도 侍臣과 기로 등에 술잔치를 베풀어 함께 즐기는 태평성사로 세상을 경축하였고, 고려에서는 당나라의 법을 본받아 3월 3일, 9월 9일을 영절로 정하고 문무 대소 관원들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대로 즐기게 했는데, 3월 3일은 들뜬에서 놀아 이를 답청이라 했고, 9월 9일은 산에 올라 登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태평성세의 모습이 당송보다 뛰어나고 태평을 즐겨 하기에 알맞은 때이니 옆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밝게 살피소서.

이러한 건의에 대해 세종은 “3월 3일과 9월 9일을 영절로 정하고, 여러 대소 관원들과 선비와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날에는 경치 좋은 곳을 택하여 즐겁게 놀게 하여 태평한 기상을 形容토록 하라”며 윤허하였다.<sup>32</sup> 이에 따라 보름 후의 중양절에

席末 斯文高會共論詩”, 權探, 「碧松亭稷飲」, 『東文選』卷17.

<sup>29</sup> 『太宗實錄』卷3, 太宗 2年(1402) 2月 18日과 4月 17日 條 참조.

<sup>30</sup> 『太宗實錄』卷28, 太宗 14年(1414) 8月 4日 條 참조.

<sup>31</sup> 『世宗實錄』卷45, 世宗 11年(1429) 8月 24日 條 참조.

<sup>32</sup> “以三月三日 九月九日爲令節 俾諸大小臣僚 中外士民 各當其日 選勝地遊樂 以形容太平之氣象”,

기로와 고관들에게 술과 풍악을 하사하여 회음하게 했으며, 4년 뒤 1433년 정월에 유관이 다시 글을 올려, 당송의 낙종회와 고려 최당의 기영회와 같은 옛 제도에 의거하여 현직자와 퇴직자 1, 2품 중에서 나이 70세 이상의 약간 명으로 ‘기영회’ 설치를 건의하고 다음 날 결성하자 왕이 매우 아름답게 여기며 술과 좋은 안주를 내려 주었다.<sup>33</sup>

개국 초인 세종 연간을 통해 관료사족의 모임이 영절을 맞이하여 태평성세를 즐기는 유락연집의 경향으로 정례화되고 국가 최고 원로들의 여생을 즐겁게 하기 위한 기영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이루어졌다. 기영회의 경우 ‘坐目冊’을 작성했는데, 관직 서열 보다 나이 순서에 따라 “관직과 성명, 자호와 나이(某官姓名與字年歲)”를 나열하여 적고 나중의 가입자는 왼쪽으로 이어서 썼다고 한다.<sup>34</sup> 한편 세종 30년 12월에 궁중에 불당을 건립 후 낙성법회인 경찬회를 열고 참석자들이 함께 ‘계를 결성(結契)’했는데, 모임 행사를 수양대군이 도회하고 契文을 지어 모임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여 쓰고 軸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고 하니,<sup>35</sup> 계축의 형식과 분급 제도도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연간의 정례화 추진에 따라 관료문사 계회는 제도화 또는 관례화되면서 세조 성종 연간의 15세기 후반에 성행하기 시작하였다.<sup>36</sup> 강희맹이 성종 2년(1471)에 쓴 「西湖蠶嶺契飲序」에 의하면, 서호의 잠령은 원래 까마귀와 술개, 백로 등의 서식지였는데 근래 계회와 같은 모임의 악무 소리 때문에 새 집이 없어졌다고 했을 정도로 빈번해진 것이다.<sup>37</sup> 계회도의 제작도 “그러서 담아내고(堪作畫)” “그러서 행한 자취를 머물게 하고(繪事留陳迹)” “그림으로 빛내고(炳丹青)” “그림으로 전하여 우리들 문명을 크게 하고(圖以傳之 賁我文明)” “그림으로 만나보고(相逢圖畫)” “태평성세의 형상을 증명하고(徵太平之有像)” “다른 때에 풍류처를 기억하고(他時記憶 風流處)” “후일에 보기(後日觀)” 위한 취지에서 본격화되었다.

주31과 동일.

<sup>33</sup> 『世宗實錄』卷59, 世宗 15年(1433) 1月 19·20日 條 참조.

<sup>34</sup> 崔恒, 「香英圖會坐目」, 『太虛亭文集』卷1 참조.

<sup>35</sup> “首陽大君圖慶讚會 又製契文 列書與會人名 作軸分與之”, 『世宗實錄』卷122, 世宗 30年(1448) 12月 5日 條; “往者佛堂慶讚之時……赴會者結契”, 『世宗實錄』卷124, 世宗 31年(1449) 5月 21日 條. 이러한 分軸은 공신들에게 교서를 분급하는 ‘分軸禮’에 연원을 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sup>36</sup> 대사성이던 홍귀달은 成宗 23年(1492) 3월에 쓴 「驄馬契文」(『虛白亭集』卷3)에서 상고시대에는 인심이 순박하여 결계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금은 인심이 변하여 결계하여 충성심과 우의를 다지게 되었다고 했다.

<sup>37</sup> “蠶嶺之地 舊爲烏鳶鷺之所棲 今爲弦管歌舞之所聞 而樹梢無懸巢”, 姜希孟, 「西湖蠶嶺契飲序」, 『私淑齋集』卷8.

기영회의 경우, 성종 4년(1473)이래 훈련원에서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하사연으로 열렸으며, ‘國法’에 의해 ‘例宴’으로 제도화되었다.<sup>38</sup> 기로들의 사적 모임은 ‘五老契’ ‘續九老會’ ‘七老기영회’ ‘七老계회’ ‘十老契’ 등의 이름으로 전개되었는데, 15세기 말경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황섭(1544~1616)의 종교조부가 참여한 ‘오로계회도’는 술에 취한 후덕한 모습의 기로들이 앉아 있는 자리 좌우로 樂舞者가 배치되었고, 그 앞으로 자제들이 두 손을 모으고 공수하며 서있는 광경으로 ‘성대하게’ 묘사되었다고 한다.<sup>39</sup>

동년회는 ‘同榜’ ‘同桂’ ‘同蓮’ ‘蓮榜’ 등의 이름으로도 당나라의 ‘曲江讌會’를 고사로 인유하며 文酒를 즐기는 사문의 풍류로 열렸으며, “동서로 벼슬길이 홀어져 만나기 어려운(遊宦東西會合難)”데도 번거로울 정도로 열렸던 모양인지 모임을 알리는 회람을 받고 서거정은 “同年讌集休嫌數” 즉 동년들 자주 모이는 것 싫어하지 말라며 읊기도 했다.<sup>40</sup> 문헌 기록에 의하면 계회도로는 다음 시기인 16세기 전 반 중종 연간 무렵부터 ‘同年會飲圖’와 ‘司馬榜會圖’ 등의 제목으로 그려진다. 조선 개국 초부터 그림으로 제작된 동경계회는, 소세양이 중종 12년(1517)에 쓴 「題遂同庚契會圖」에서 “근래 성행하기 시작했다(始盛於近世)”고 언급한 것이나,<sup>41</sup> 이를 대상으로 읊은 제화시들이 서거정(1420~1488), 이승소(1422~1484), 강희맹(1424~1483), 김종직(1431~1491) 등에 의해 대두된 것으로 보면, 15세기 후반의 성종조 무렵에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밖에도 여러 명칭의 계회도들이 기록에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통해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관인사회의 확대와 官闕의식의 심화 등과 결부하여 대중을 이룬 관청과 관료 중심의 계회 및 계회도이다. 성종 24년(1493)에 도총관 임광재가 “요즈음 문신들은 벼슬길에 오르면 同官으로 결계하여 交情을 굳게 한다”고 했듯이,<sup>42</sup> 동관계회로서 번성하게 된 것이다. 관아에서 기생을 데리고 모여 사사로이

<sup>38</sup> 崔恒, 「香英會記」, 『太虛亭集』卷1; 『成宗實錄』卷40, 成宗 5年(1474) 3月 3日 條; 成倪, 「赴香英會」, 『虛白堂詩集』卷6 참조.

<sup>39</sup> “吾姓族黃公載 好古而篤於親 一日袖一軸畫 其容若有臚曰 噫此乃吾高祖上舍諱直卿公 與同鄉同德修契事也 有友四人焉 年皆七十餘 其姓諱齒序詳圖下 觀其麗日和風 勝筵高張 彈者吹者 楚腰之舞 吳歎之唱 呈技於筵之左右 又有羣子弟拱而立於前 其中五耆老 蒼顏鶴髮 頽然列坐 醉酒飽德之容 藹然於丹青之表”, 黃暹, 「古五老契會圖序」, 『息庵集』卷4.

<sup>40</sup> 徐居正, 「邊宗簿孝同第設戊午進士同年會」, 『四佳詩集』卷21; 「明日同年會回簡適至」, 『四佳詩集』卷14 참조.

<sup>41</sup> 蘇世讓, 「題遂同庚契會圖」, 『陽谷集』卷10 참조.

<sup>42</sup> “任光載啓曰……今之朝官 文臣則有同年筮仕 久則有同官或作契 以堅交情”, 『成宗實錄』卷276, 成宗 24年(1493) 4月 8日 條.

술을 마시는 '유흥'행위는 처벌의 대상이었으나, 영절이나 '공무여가(公暇)'에 '公事'로서의 회음은 태평성세의 "休暇共逍遙"와 '풍류성사'로 전개되었으며, '朋結作契'의 미덕으로 관행화된 것 같다.

이러한 동관계회도는 기록으로 남겨진 제목 명칭에 의해 관아계회도와 관료계회도로 나눌 수 있다. 관아는 중앙관서와 지방관서, 임시 및 특별관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앙관서 계회도가 가장 많이 보인다. 그 중에서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臺諫 양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 양사의 계회도가 15세기 후반을 통해 크게 대두된 것은, 기존의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이 공신 권력에 의해 왕과 고위 대신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성종조에 이르러 제도적 운영에 따른 공론이 중요시되고 간쟁행위가 활발해지면서, 대간들의 연대의식 고취 또는 일체의식 강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sup>43</sup> 관료계회도의 경우, 대부분 6조와 그 소속 관아의 실무책임자인 郎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낭관들이 결속을 위하여 '作會'했던 이러한 풍조는 새로운 공론형성층으로 등장한 신진 엘리트 낭관들의 낭관권이 성종조에 대두되어 종종 대에 수립되는 추이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4</sup>

그런데 15세기 후반의 주류를 이룬 동관계회도는 거의 대부분 '禊飲圖'를 비롯하여 '會飲圖'와 '宴飲圖' '讌會圖' '燕會圖' '宴會圖' 등으로 지칭되었다.<sup>45</sup> "속난정(續蘭亭)" 즉 '난정계음'의 고상한 모임을 계승한다는 명분과 함께, 성군과 태평한 세상을 만나 생긴 공무 여가나 직무 휴가일에 "술자리 풍류(樽前風流)"로 "태평을 즐기며(樂太平=昇平樂)" 친목과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이다.<sup>46</sup> 모임은 관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出城'하여 서호의 잠령 또는 잠두를 비롯해 용산강과 장어동 차일암 등지의 승경처에서 열렸다.

이에 비해 契軸=契簇류는 그림이 포함된 사례도 있지만, 함께 근무한 관원들의 성명과 계문 및 시문을 장황한 것으로, '총마도(사헌부도)'나 '미원도(사간원도)'처럼 관아 이름이 붙은 그림과 대체로 같은 경향을 보였다. 모임은 관아의 정원이나 후원을 비롯하여 관서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해당 관아와 관원들이 쇠처럼 단단

43 성종조 대간들의 연대의식 고취 등에 대해서는 송용섭, 「성종대 대간 피험의 증가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62(2012. 9), pp.173-209 참조.

44 최인돈, 「16세기 낭관권의 형성과정」, 『한국사론』14(1986), pp.3-50 참조.

45 홍선표, 앞의 글(2001), pp.347-352 참조.

46 徐居正, 「禮曹六郎藏魚洞禊飲圖」, 『四佳詩集』卷21; 「題兵曹郎官契飲圖」, 『四佳詩集』卷30; 「工郎讌會圖」, 「題薇垣讌會圖」, 『四佳詩集』卷46; 「題秋部禊飲圖」, 『四佳詩集』卷50; 姜希孟, 「京兆契飲圖」, 『私淑齋集』卷4; 金宗直, 「書義禁府會飲圖」, 『佔畢齋集』卷19; 成倪, 「題諫院燕會圖」, 『虛白堂續集』卷1 등 참조.

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금란지계'의 우의로 "함께 경륜을 펼쳐(共步經綸)" 군주를 바르게 보필하고 나라를 구하는 '正君匡國'의 직무를 다하고, 헤어져도 서로 잊지 말자는 감계적 취지로 제작된 것이 많다.<sup>47</sup> 홍귀달(1438~1504)이 「司諫院契軸文」에서 관원들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맹세할 뿐 아니라 흰 비단 위에 그림으로 그리고 이름을 적어 넣어 축을 만들어 벽에 걸어 놓고 보면서 명분을 따르고 실제에 부응하고자 하니 마음 씀이 이에 이르렀다"고 말한 것으로도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sup>48</sup>

조선 전기의 계회도는 16세기 전반기의 종종 연간에 동관계회도를 중심으로 최성기를 맞게 된다. 관아계회도는 15세기 후반기에 이어 사헌부와 사간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승정원계회도가 증가했는가 하면, 사옹원, 상의원을 비롯하여 하급 관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관료계회도는, 종종 17년(1522) 대사간 유관이 상소에서 "6조의 낭관들이 공공연히 모임을 만들어 단합이니 罰禮니 하여 음악을 크게 베풀며 멋대로 즐긴다"고 했듯이,<sup>49</sup> 낭관들이 주도한 것이 앞 시기에 이어 대중을 이루며 전개되었다. 특히 '벌레'의 경우 신임관원이 선임관원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免新벌레'의 회음연으로 이를 통해 동관이 되는데, 이때 계축을 제작하여 나눠주는 '分軸'도 이루어졌던 것 같다.<sup>50</sup> 그러나 이들 경비를 신임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고 가혹행위도 이루어져 종종으로부터 '新來侵虐'으로 폐단이 지적되고 금지령이 내려지곤 하였다.<sup>51</sup>

16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계회도는 기존의 '계음도' 등에서 '계회도'로 거의 명칭이 통일된다. 그리고 계첩 형식으로 제작된 사례도 보인다.<sup>52</sup> 야외 모임의 경우 서

47 金宗直, 「題驄馬契軸」, 『佔畢齋集』卷16; 申用漑, 「題禮部郎契軸」, 『二樂亭集』卷5; 洪貴達, 「司諫院契軸文」, 『虛白亭集』卷3 등 참조.

48 "所不得其職者 寧能一日苟居此乎 不惟矢諸心 又從而圖形注名於紈素 軸而懸諸壁 將以循其名而副其實 其用心至此", 주47의 洪貴達 참조.

49 "有若六曹郎官 公然作會 或稱齊進 或稱罰禮 大張音樂 恣意歡謔", 『中宗實錄』卷45, 中宗 17年(1522) 8月 9日 條.

50 『光海君日記』卷49, 光海君 4年(1612) 1月 29日 條 참조. 동관계회도와 신참례와의 관계에 대해 윤진영, 앞의 글(2003), pp.56-59에서 언급했는데, 음식만 보내는 허참례 10일 후 신구 관원이 처음 동석하는 면신례는 주로 신임관원의 집에서 열렸고 이때 동관이 되는 행사로 그림이 없는 계축이 제작된 것으로 보여져, 이러한 신참례가 동관계회도의 성행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1 『宣祖實錄』卷140, 宣祖 34年(1601) 8月 26日 條; 『顯宗改修實錄』卷11, 顯宗 5年(1664) 10月 23日 條 참조.

52 "今其帖圖 傳寶于子孫之家", 朴遂良, 「公爲司饗院參奉時 有院中契會帖圖」, 『三可集』; 宋麟壽, 「題同庚契帖」, 『圭菴集』卷1 참조.

호와 더불어 동호와 화양정, 삼청동에서 열리는 등, 주로 '江亭'에서 이루어졌는데, 3월 3일 난정의 '祓禊'와 결부하여 '江亭祓契'로 부르기도 했고, '祓禊圖'로 제명하기도 했다.<sup>53</sup> 이 시기의 동관계회도는 앞 시기의 태평성세 시주풍류와 감계적 취지가 복합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동료로서의 교분을 공고히 하고 훗날까지 잊지 말자는 기념물적 성격을 강조했으며, 기린각의 공신상과 맞먹는 의의를 지닌 것으로도 여겨진 바 있다.<sup>54</sup> 문헌 기록상 16세기 전반기 동관계회도의 이러한 추세는 양적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며 16세기 후반까지 성행하였고, 임란이후 점차 약화되다가 인조 4년(1626) 직무 방해 등을 이유로 각사 회집의 금단이 윤희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sup>55</sup>

### III. 해외소재 조선 전기 계획도의 의의

지금 조선 전기 계획도로 일본과 미국에 소재하는 작품은 10점 가량이다.<sup>56</sup> 1531년경의 <독서당계획도>를 비롯하여 1540년경의 <사옹원계획도> 1551년의 <동경계획도> 1554년의 寓夫書 <계획도> 1557년의 <동궁책봉도감계획도> 1565년의 <문정왕후산릉도감계획도> 1560년대의 <하관계회도> 1574년의 <계획도> 1576년의 <선전료우중회관서도> 16세기 후반의 <계획도> 등이다. 이 밖에 판각본으로 1533년의 <한성부낭관계축>과 1545년의 <은대계획도>가 에도 말기에 편찬된 『古畫備考』의 「조선서화전」에 수록되어 있고,<sup>57</sup> 에도 후기의 남화가 다니 분초(谷文晁)와 그 一門에 의해 모사된 <계획도>가 알려져 있다.

이들 계획도는 조선 전기 중에서도 16세기 계획도의 형식적 유형과 화풍적 특징 및 변천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독서당계획도>는 현존하는 실경산수를 배경으로 한 계획도로서 가장 이른 작품이며,<sup>58</sup> <동궁책봉도감계

53 李希輔, 「題京兆郎官契會圖」, 『安分堂詩集』卷1; 「題掌隸郎官契會圖」, 『安分堂詩集』卷2; 金安國, 「書秋官諸郎西湖祓禊圖」, 『慕齋集』卷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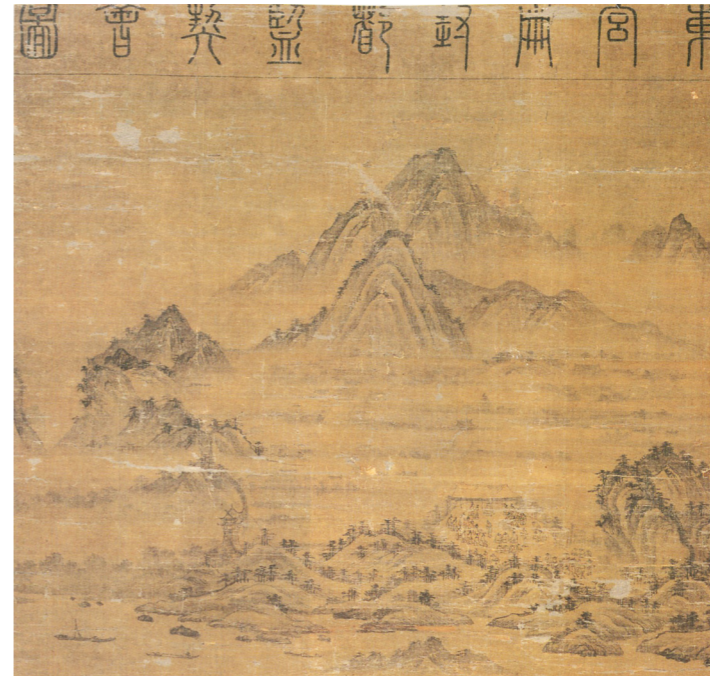
54 “不必奇功收汗馬 丹青一幅當麒麟”, 李荇, 「都總府契會圖」, 『容齋集』卷3.

55 『承政院日記』, 仁祖 4年(1626) 10月 23日 條 참조.

56 미국에 있는 <동경계획도>와 <선전료우중회관서도>도 최근 일본에서 재유출된 것이다.

57 「조선서화전」에는 1541년에 '蕃仲(성세창)'이題한 총마계획도로 보이는 '墨繪山水'와 안상과 유충홍 등이 1550년대 낭관시절에 참여한 內資寺의 '大官契會圖(山水繪)', 원혼과 이증민 등이 참여한 1585년의 '尙齒會圖'가 삽도 없이 기록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58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안휘준, 「16세기 조선왕조의 회화와 단선점준」, 『진단학보』45·46(1979. 6)과 박은순, 「16世紀 讀書堂契會圖 研究: 風水의 實景山水畫에 대하여」, 『美術史學研究』212(1996);



1  
〈東宮冊封都監契會圖〉  
1557년 비단에 수묵  
90.6×58cm  
일본 개인소장

회도)와 <문정왕후산릉도감계획도>도 도감계획도 류로 제일 이른다. <동궁책봉도감계획도><sup>1</sup>는 명종 12년(1557) 8월 중순에 원자를 동궁(순회세자)으로 책봉하는 대례를 주관한 임시 관서의 중신들이 행사를 마친 뒤 도제조 심연원과 제조 정사룡, 예조판서 홍섬 등이 이를 기념하여 계획을 갖고 제작한 것이다.<sup>59</sup>

국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도감이 큰일을 마치고 고락을 같이 한 관료들이 계획을 하고 이를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계획도는 15세기 말 성종조에 대두하여 1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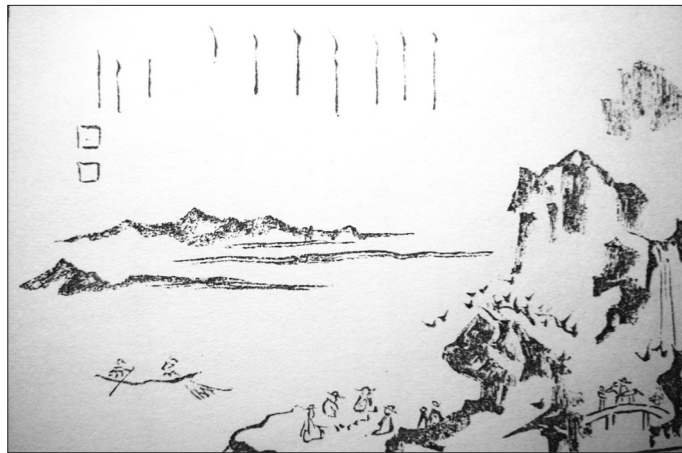
기 중중 연간 이래 증가세를 보였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동궁책봉도감의 계획도 류는 중종 15년(1520) 4월에 인종의 세자 책봉시 설치한 도감에서의 '책례도감계획도'가 첫 사례이다.<sup>60</sup> 37년 뒤인 1557년에 제작된 <동궁책봉도감계획도>의 구도는 삼각산과 백악산을 각각 태조산과 조산으로 화면 상단 중앙에 배치하고 하단에 목멱산을 안산으로 묘사했는가 하면, 좌우로 인왕산과 매봉을 내백호와 내청룡으로 그려 넣고 화면 맨 아래로 한강(남호)을 배설하는 등, 가장 전형적인 明堂圖의 구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sup>61</sup> 왕세자의 책봉을 하늘에 고하고 태평성대의 실현을 축원하기 위해 모인 계획이 화면의 우측 하단에 그려진 것으로 보아 남산과 응봉 사이의 용산부근에서 열린 것 같다. 이 작품은 현존하는 계획도 가운데 야외에서 차일을 치고 모임을 갖는 최초의 사례로도 주목된다.

윤진영, 앞의 글(2003)에서 다루어졌다.

59 板倉聖哲, 「繪畫史における明宗朝-契會圖と王室發願佛畫を中心に」, 『アジア遊學』120(東京: 勉誠出版, 2009. 3), p.61 참조.

60 李荇, 「題冊禮都監契會圖」, 『容齋集』卷9 참조.

61 조선 전기의 계획도 류 실경산수화에 풍수적인 구성원리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박은순, 앞의 글(2003)에서 거론되었다.



2  
〈文定王后山陵都監契會圖〉  
1565년 비단에 수묵 京都國立博物館

3  
〈漢城府郎官契軸〉(이모 판각도)  
1533년 『古畫備考』 『朝鮮書畫傳』 수록

〈문정왕후산릉도감계회도〉<sup>2)</sup>의 경우 제목과 좌목 등이 결실된 채 횡축으로 표장되어 있다. 화면에 제시가 아니라 계문이 적혀있는 첫 사례로서 주시된다. 당시 좌찬성 겸 대제학 홍섬이 지은 계문에 의하면, 명종 20년(1565) 4월 7일에 문정왕후 서거로 양주 대방동(지금의 노원구 공릉동)에 능침을 조성하고 7월 13일에 발인한 다음 산릉도감 관계자들과 함께 일한 것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만든 ‘契卷’이라고 한다. 홍섬이 명기한 대로 두루마리로 제작되었다면 우측의 제목과 좌측의 좌목 부분이 결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일반적인 계회도 형식인 족자형의 ‘계축’과 달리 횡권의 형태였다면 조선 전기 계회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렇지 않고 종축으로 조성되었을 경우, 상단의 제목과 함께 중단의 계획 장면 일부와 하단의 좌목이 절단되었을 것이다.

현재 이 그림에는 주봉만이 보이는데, 문정왕후 능침인 태릉을 계획 장소의 배경으로 묘사했다면, 그 宗山인 수락산을 그렸을 가능성도 있다. 주봉의 산형이나 능

4  
〈契會圖〉  
1554년 종이에 수묵  
60.7×73.8cm  
九州國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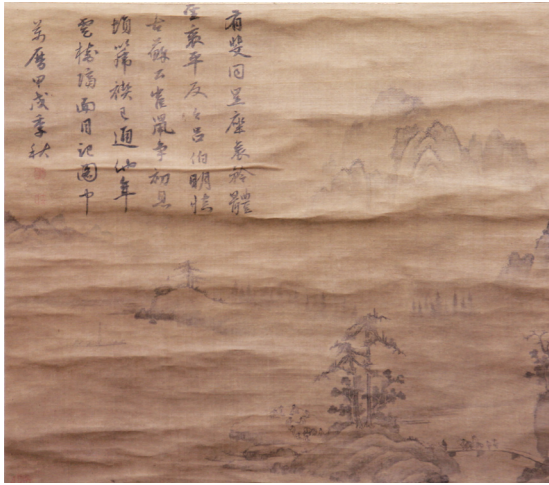


선의 골격 표현 등은 앞서 언급한 〈동궁책봉도감계회도〉와 유사하다. 산의 윤곽에 가해진 태점이나 산 표면의 명부에 구사된 단선점준의 양태도 비슷하지만, 암부를 처리한 묵면의 평판화와 먹색의 농도가 좀 더 절파풍을 반영하고 있어 중기 화풍으로 이행되는 양식 경향을 잘 보여준다.

「조선서화전」에 수록되어 있는 1533년의 〈한성부낭관계축〉<sup>3)</sup>은 안견파 倣古 산수를 배경으로 제작된 16세기 계회도의 초기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다.<sup>62</sup> 화면 하단에 앞이 탁 트인 강변의 너른 곳 위에 ‘展席臨江’하여 둘러앉은 계원들이, 丘原 위로 사선을 그으며 층층히 상승하는 ‘龜頭’산봉 아래서 원근감과 오행감을 조성하며 배설된 殘山들을 원경으로 시주풍류를 즐기고 있다. 고기잡이 거룻배와 가느다란 폭포수, 계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은 다리를 건너는 기러인물의 모티프 등은 1540년경 〈미원계회도〉(국립중앙박물관)의 선형 양식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구원 위로 연이어 솟아 오른 변각 편파구도는 九州國立博物館 소장

<sup>62</sup> 이 계회도의 명칭은 「조선서화전」에 수록되어 있는 蘇世讓(1486~1562)의 제시와 그의 「題漢城府郎官契軸」, 『陽谷集』卷10과 일치하여 붙인 것이다.





1554년의 <계회도><sup>도4</sup>와 더 유사하다. 이 그림은 제목과 좌목 부분이 결실되고 계획 산수 그림만 남아있는데, 화면에 적혀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寓夫가 제시를 쓴 “嘉靖甲寅秒秋下浣(명종 11년 9월 하순)”에 의거하여 제작년대를 추정할 수 있어 이 시기 계획도 기년작의 새로운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화면의 하단 일부가 절단된 느낌을 주지만, 구도는 1533년의 <한성부낭관계축>의 변각 편파 계열이며, 높게 솟구친 대각선상의 層巒과 운무에 감싸인 맞은 편 산의 대비가 좀 더 심하게 설정된 것이 다르다. 열좌한 계원들 뒤에서 고기잡이 하는 광경은 김종직이 「迎接都監西湖飲酒圖」에서 읊은 “작은 언덕에 형초 깔고 앉아 좋은 술 마시고 거룻배로 그물 놓아 하얀 비늘 물고기 끌어올려라”는 시 구절을 연상시킨다.<sup>63</sup>

일본 개인소장의 1574년 <계회도><sup>도5</sup>도 상단의 표제와 하단의 좌목이 절단되고 계획 산수 부분만 남아 있다. 화면의 좌측 상단의 제시 끝에 묵서로 “萬曆甲戌季秋”라고 쓰여 있어, 선조 7년(1574) 음력 9월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 기년작으로서의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계획은 근경을 독립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낮은 구릉의 쌍송 모티프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봉은 운무에 싸인 중경 뒤로 높게 서있다. 이처럼 경물들이 한 쪽으로 치우쳐 포치되고 근경과 주봉이 중경의 강물이나 운무에 의해 분리되는 수평적 兩岸 구도는 1540년의 <미원계회도>와 1541년의 <하관계회도>, 1542년의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sup>도6</sup>, 1546년의 <추관계회도>로 이

63 “小巖班荊傾綠醕 扁舟撒網薦霜鱗”, 金宗直, 「題迎接都監西湖飲酒圖」, 『佔畢齋集』卷18.



5  
<契會圖>  
1574년 비단에 수묵  
51.3×53.8cm  
일본 개인소장

6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1542년 비단에 수묵담채  
102×61cm  
국립광주박물관

7  
<夏官契會圖>  
1560년대 비단에 수묵담채  
53.5×57cm  
일본 개인소장

8  
<太常契會圖>  
1585년 비단에 수묵  
93×58.5cm  
삼성미술관 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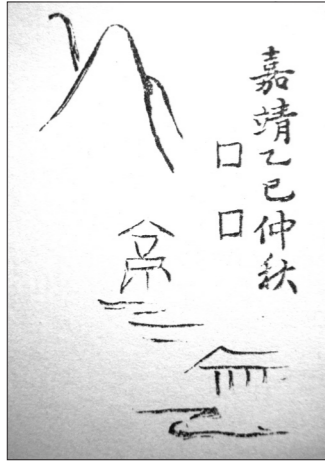
어지는 계열로 점차 공간감이 확대되는 변화를 보인다.

일본 개인소장이었던 <하관계회도><sup>도7</sup>도 쌍송 모티프의 구원 밑에서 전개되는 계획을 독립된 근경으로 설정하고 중경의 낮은 강호와 멀리 분리하여 고원의 주봉을 배치한 수평적 양안 구도로 이루어졌다. 화면 상단의 전서체로 쓴 표제에 의해 夏官 즉 병조 관료들의 계획도임을 알 수 있으나, 제작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좌목은 결실되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적혀 있는 제시 중 “鵝溪一幅丹青”에 의거하여 ‘鵝溪’를 李山海(1539~1609)의 별호로 간주하고 그의 전칭작으로 보기도 한다.<sup>64</sup> 그러나 여기서 ‘아계’는 중국 사천성 영정현에 있는 비단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며 畫絹을 뜻하는 것이다. 구도는 1574년의 <계회도>와 1585년의 <太常계회도><sup>도8</sup>와 유사하지만, 치형돌기와 細皴의 양태나 필묵법 등으로 보아 1560년대의 작품이 아닌가 싶다.

일본 개인소장인 1540년경의 <사옹원계회도>는 응봉 아래의 독서당이 바라보이는 압구정에서 열린 계획 광경을 그린 동호 실경류 계획도로서 중요하며, 16세기 후반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大和文華館 소장 <계회도>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sup>65</sup> 「조선서화전」에 수록된 1545년의 <은대계회도><sup>도9</sup>는 원작을 축도한 것이 아니라 주요 모티프만 약식으로 개요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비교에 무리가 있지만, 강변 정자와 강 뒤로 또 다른 건물 및 주산을 그려 놓은 것으로 보면, 위의 두 작품을 포함

64 幽玄齋 編, 『幽玄齋選韓國古書畫圖錄』(京都: 幽玄齋, 1996), p.38 참조.

65 윤진영, 앞의 글(2003), pp.146-149 참조.



9  
 <銀臺契會圖>(소묘 판각도)  
 1545년  
 『古畫備考』 「朝鮮書畫傳」 수록

10  
 <同庚契會圖>  
 1551년  
 비단에 수묵담채  
 129.5×67.9cm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하여 1534년의 <은대계회도>(이현보종손가 소장)처럼 압구정에서 열린 계회를 묘사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일본의 화랑에 있다가 미국으로 재유출된 1576년의 <선전료우중회관서도>는 좌목이 결실되었는데, 계회 장면 그림은 세로 85.6cm, 가로 79.1cm로 현존 작품들 가운데 가장 큰 편에 속한다.<sup>66</sup> 정유길의 제시 끝에 적힌 “柔兆困敦暮春下漸”에 의거하여 ‘柔兆困’ 즉 병자년(1576) 3월 하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은 관서팔경의 하나인 평안북도 영변도호부가 있던 철옹성이라고도 불리운 약산성의 東臺에서 이루어졌던 계회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지방의 실경을 그린 현존하는 최초

<sup>66</sup> 홍선표, 앞의 글(2001), pp.337-342 참조.



10-1  
 도10의부분

10-2  
 도10의부분

의 작품이며, 계회 주변의 기암을 비롯한 바위와 강변의 토파 및 암석에는 농목을 면적으로 표면 처리하는 등, 절파풍의 필묵법을 본격적으로 구사한 계회도로도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약공과 기녀들을 대동하고 무희의 춤추는 장면까지도 회된 것은 기존의 계회도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일본에서 유전되다가 지금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있는 1551년의 <동경계회도>도10는 16세기 유일의 동갑계회도로서 중요하다. 이 작품은 표제와 좌목 모두 결실된 상태이나, 화면 상단에 적혀 있는 제시의 연기인 “嘉靖辛亥”에 의거하여 명종 6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시가 정사룡(1491~1570)의 『湖陰雜稿』 「書同庚稷會圖」와 동일하여 제목을 파악할 수 있다.<sup>67</sup> 정사룡은 같은 해에 태어나 비슷한 시기에 과거에 급제하고 이제 환갑으로 7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서로 간의 우애를 기념하여 계회를 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림의 구도는 수평 양안식으로, 1542년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도6의 우측 편파 경관 구성과 유사하면서 근경이 축소되고 주산 계곡의 심원함을 강조한 것이 다르다. 경물과 인물 묘사가 기존의 계회도 가운데 가장 정교한 편이다. 산수 표현에서는 치형돌기에 가해진 까만 먹점을 비롯하여 조선 초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근경의 계원들과 동자들의 복장은 정유길도 “衣冠雅古”라고 읊었듯이 우아한 고풍으로 나타났다.도10-1, 10-2 모임은 낙사의 진술회를 그림은 향산의 구로회를 본뻐다고 말할 것처럼 방고적 경향을 질계 풍긴다. 계류의 굴곡진 물길도 난정수계의 고사를 연상시킨다. 계회 장소에 설치된 고동서화들은 종종 연간 이후 본격화되는 이 분야

<sup>67</sup> “生同歲內獲聯肩 龍虎登名復後先 光景侵尋開七秩 衣冠雅古萃群賢 會傾洛社曾儀俗 圖傲香山正尚年 暫謝機衡鵬詠罷 竝趨曹省卯申纏 且從眞率爲寒儉 誰道崇高易疾顛 盛事無詩當學白 非才授簡思茫然”, 鄭士龍, 「書同庚稷會圖」, 『湖陰雜稿』卷4.



에 대한 애호취미를 엿볼 수 있는 시각자료로도 주목된다. 이러한 상고적 이미지는 16세기의 동경계회도들이 ‘續香山九老賢’, ‘續洛社稷飲’, ‘春秋修稷事’ 등으로 인식된 것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고 하겠다.

에도 후기의 다니 분초 일문에 의해 모사된 <관아후원계회도><sup>도11</sup>는 표제와 좌목은 없고 그림만이 알려져 있다.<sup>68</sup> 이 모사본의 구도는 1557년의 <동궁책봉도감계회도><sup>도1</sup>와 유사하게 백악산을 조산으로 하는 명당도의 구성원리로 이루어졌는데, 한양의 도읍 전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차이를 보인다. 백악산의 양태와 묘사법은 1531년의 <미원계회도><sup>도12</sup>와 상당히 비슷하다. 경복궁이 건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란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짐작되지만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계회는 태평성세의 서운이 깃든 한양의 진산과 법궁을 화면 상부 중앙에 배치하고 그 서편의 관아 후원에서 열리고 있다. 동관계회의 경우, 15세기 후반부터 관청의 정원이나 후원에서도 자주 열렸지만, 이러한 관아 후원계회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었다.

#### IV. 맺음말

계회도에는 제화시와 함께, 계문과 序·跋文 등 관련 기록이 많이 따르는 특성

11  
 <官衙後園契會圖>  
 (谷文晁 一門에 의한 모사본)  
 일본 개인소장

12  
 <薇垣契會圖>부분  
 1531년 비단에 수묵담채  
 삼성미술관 리움

상 이들 기록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회도의 유형과 그 연원 및 흐름, 그리고 제작 동기와 배경 등을 살펴보고, 해외소재의 작품 10점과 판각 및 모사본 3점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존 작품들에 비해 훨씬 많이 전하는 문헌 기록들을 새롭게 집성, 검토하면서 조선 전기 계회도의 유형과 전개 양상을 개관한 것은, 이 분야 역사적 동향의 실상적 파악과 함께 향후 계회도 작품의 입체적, 심층적 분석과 해석의 안목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해외소재 계회도의 의의를 언급한 것도 계회도와 함께 조선 전기 회화의 심화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의 일환이며, 이 시기 회화사 종합연구의 토대적 구실을 할 것이다. 특히 조선 전기 회화의 경우, 일본을 비롯하여 해외에 적지 않은 수의 작품이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의 발굴 및 조사는 절대적으로 화적이 영성한 이 시기 회화사의 복원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 주제어 keywords

朝鮮 前期 繪畫 paintings of early Joseon, 契會圖 Gyehoedo (association gathering painting), 契軸 hanging scroll, 耆英會圖 assembly of elder statesmen, 記錄畫 documentary painting, 雅會 elegant gathering

투고일 2013년 3월 8일 | 심사일 2013년 4월 5일 |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12일

<sup>68</sup> 板倉聖哲, 「幕末期における東アジア繪畫コレクションの史的 위치-谷文晁の視點から」, 『美術史論叢』28(東京: 東京大學文學部美術史研究室, 2012).

## 사료

- 『太祖實錄 *Taejo Sillok*』  
『太宗實錄 *Taejong Sillok*』  
『世宗實錄 *Sejong Sillok*』  
『成宗實錄 *Sungjong Sillok*』  
『中宗實錄 *Jungjong Sillok*』  
『宣祖實錄 *Sunjo Sillok*』  
『光海君日記 *Gwanghaegun Ilgi*』  
『承政院日記(仁祖) *Seungjeongwon Ilgi(Injo)*』

## 문집

- 姜希孟 Kang, Himeang, 『私淑齋集 *Sasukjejip*』  
權近 Kwon, Geun, 『陽村集 *Yangchonjip*』  
金安國 Kim, Anguk, 『慕齋集 *Mojejip*』  
金宗直 Kim, Jongjik, 『佔畢齋集 *Jumpiljejip*』  
朴遂良 Park, Suryang, 『三可集 *Samgajip*』  
徐居正 Seo, Geojeong, 『四佳詩集 *Sagasijip*』  
成俔 Sung, Hyun, 『虛白堂詩集 *Hubaekdangsijip*』  
蘇世讓 So, Seyang, 『陽谷集 *Yanggokjip*』  
李奎報 Lee, Gyubo, 『東國李相國集 *Donggukisanggukjip*』  
李穡 Lee, Saek, 『牧隱文藁 *Mogeunmungo*』  
李承休 Lee, Seonghyu, 『動安居士行錄 *Dongangusajip*』  
李荇 Lee, Haeng, 『容齋集 *Yongjejip*』  
李希輔 Lee, Hibo, 『安分堂詩集 *Anbundangsijip*』  
林椿 Im, Chun, 『西河集 *Seohajip*』  
鄭士龍 Jung, Saryong, 『湖陰雜稿 *Hoeumjapgo*』  
洪貴達 Hong, Guidal, 『虛白亭集 *Hubaekjungjip*』

## 논저

- 박은순 Park, Eunsun, 「16世紀 讀書堂契會圖 研究: 風水的 實景山水畫에 대하여 A Study on the Paintings of Literati Gathering at Toksöda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12, 1996.

## 참고문헌

- 박종진 Park, Jongjin, 「고려시기 해동기로회의 결성과 활동 Organization of the Haedong Giro-hwae gathering, and its activities during the Goryeo dynasty period」, 『역사와 현실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66, 2007.
- 안휘준 An, Hwijun, 「한국의 문인계회와 계회도 Hankukui Muninkyehoewa Kyehoedo」, 『한국회화의 전통 *Hankukhwuihwai Jeontong*』, 서울: 문예출판사 Seoul: Munyechulpansa, 1988.
- 윤진영 Yun, Chinyöng,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Study of Kyehoe-do, Paintings of Gatherings in Choson Dynasty」,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Diss. for the Ph.D. degre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3.
- 홍선표 Hong, Sunpyo, 「정유길 題詩〈宣傳僚友重會關西圖〉 *The Painting of Former Ministers' Gathering at Ganseo District with the Poem by Jeong, Yugil*」, 『美術史論壇 *Art History Forum*』12, 2001.
- 板倉聖哲, 「幕末期における東アジア繪畫コレクションの史的 위치-谷文晁の視點から」, 『美術史論叢』28, 東京: 東京大學文學部美術史研究室, 2012.

Early Joseon *Gyehoedo* (Association Gathering Paintings)  
in Overseas Collections

ABSTRACT

Hong, Sunpyo

*Gyehoedo*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refers to the paintings made to commemorate the social gatherings of the senior scholar-statesmen and to keep them for the future generations. The paintings were generally attached with some formal texts related with the gatherings. This study focuses on the origin, history, background and types of the paintings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the related texts. It takes ten overseas paintings and three wood blocks or copies for detailed discussion.

The practice of having social gatherings of the ruling class was established during the mid Goryeo Period. In the late Goryeo Period, it developed various forms of gatherings, of the same age groups, ranks, and organizations. Depicting the gatherings traces back to those in *Haedong Girodo* and *Wonam Yeonjipdo* made in the late Goryeo. The tradition was inherited to the Joseon Dynasty by a group of Neo-Confucian scholar-statesmen and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15th century through the publications such as *Donggwan Gyehoedo*. It reached at the zenith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and remained popular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century.

There are currently 50 *Gyehoedos* of which ten are in the outside of Korea, and three are wood blocked or copied in the old Japanese documents. Of the ten paintings outside Korea, two are in the USA, out-flowed from Japan. These paintings are regarded as significant in the Korean art history.

The earliest remaining *Gyehoedo*, *Donggung Chaekbong Dogam Gyehoedo* (1557) exhibits the characteristic composition elements of *Myeongdangdo*, and

the Korea's first remaining scene capturing the association meeting held at a tent in the open area. Meanwhile, *Munjeongwanghu Salleungdogam Gyehoedo* (1565), the remaining first work to contain *Gyemun* rather than *Jesi*, can be an important source on the *Gyehoedos* of early Joseon. *Dokseodang Gyehoedo* (1531) is the first of its kind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Silgyeong Sansu* and one of several *Dongho Gyehoedo* along with *Saongwon Gyehoedo* (1540) and *Gyehoedo* (late 16th century). The printed version of *Hanseongbu Nanggwan Gyechuk* (1533) is the earliest remaining example after the style of An Gyeon, in its background landscape. Along with *Gyehoedo* (1554), *Hagwan Gyehoedo* (1560) and *Gyehoedo* (1574), it contains the inscription of the year, offering important clues about the changes of the style. *Seonjeonnyo Ujunghoe Gwanseodo* (1576) is the earliest remaining painting capturing the “real landscapes” outside the capital and marked by brush strokes influenced from the Zhe School while *Donggyeong Gyehoedo* (1551) is the only remaining example of its kind (representing the gathering of the same age members) produced during the 16th century. The paintings exhibited at the gathering venues depicted in these paintings are important sources to know the taste of art lovers of the periods. Finally, *Gwana Huwon Gyehoedo* copied by Tani Buncho's School of the late Edo Era has unique style, in which Baegaksan Mountain is located on the upper middle area to show the “ancestral mountain”.